

워즈워스의 생태적 상상력*

이 정 호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I. 말문을 열면서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위대한 시인 중의 하나이다. 그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가 살던 시대와 그의 시 사이에 맺어지는 연관성 또는 단절성에 대한 논의가 그를 논쟁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가 영국 시(특히 영국 낭만기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런 논쟁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이 글의 본론으로 들어 가기 전에 그의 시에 대한 비평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이 글의 말문을 열기로 한다.

워즈워스의 시에 대한 현대 비평가들의 논의는 그의 시에 나타난 자연과 상상력과 의 관계를 둘러싸고 일어난다. 이같은 비평가들은 흥미롭게도 워즈워스의 상상력은 자연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주장으로부터 그들의 비평을 시작한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주도적인 비평가들로는 제프리 하트먼(Geoffrey Hartman), 해럴드 블룸(Harold Bloom), 그리고 폴 드 만(Paul de Man) 등 예일 대학교의 교수 비평가들로 이들의 이같은 비평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들의 이같은 비평 논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하트먼은 워즈워스에게 있어 “상상력은 자연에서 취하거나 발전된 이미지(心像)와는 <본질적>으로 반대될지도 모른다”(Imagination may be *intrinsically* opposed to images culled or developed from Nature, Hartman 598)고 주장한다. 그는 이같은 주장을 통해 워즈워스에게 있어 자연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로 하여금 자연 저 너머에 있는 초월의 세계로 그를 이끄는 데에 자연의 중요성이 있다고 역설한다. 워즈워스에게 있어 자연은 따라서 마치 신비주의자들이 초월의 세계에 다다르기 위해 <부정의 길>(the negative way)을 걷는 것과 같은 역할은 한다고 하트먼은 보고 있다. 그러므로 워즈워스에게 있어 자연은 “자연을 통한 하나의 부정의 길”(a *via naturaliter negativa*, Hartman 599) 이상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드 만에게서도 우리는 하트먼의 주장과 비슷한 논지를 발견할 수 있다. 워즈워스의 『서시』(*The Prelude*) 제 6권에는 그가 알프스 산맥을 넘는 경험을 묘사하는 다음과

* 이 논문은 1998년도 해외 특별 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쓰여진 것임.

같은 구절이 나온다.

상상력이여! — 어디서 솟아 나온지도 알 수 없는
안개 구름처럼, 내 눈 앞에서 그리고 시쓰기에 앞서
솟아 올라, 지금 그 상상력의 힘이,
천부의 능력을 모두 지니고, 나를 타넘고
있다. 나는 구름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그 구름을 헤쳐 가려고 하지 않고 멈춰 서 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나는 내 영혼에게 말한다.
“나는 그대, 상상력의 위력을 인정한다”고. 감각의 광채가
갑자기 섬광과 함께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우리들에게 열려지는
그런 때의, 그 강렬한 강탈의 힘 속에서, 두려운
약속이 찾아 온 바로 그 때 위대함이 자리하는 그 곳에서는
우리의 높고 짙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략)

속박에서 풀려난 구름은 칙칙이 쌓인 천계(天界),
광란(狂亂)과 평화(平和), 암흑과 광명이다.
이들 모두가 한 개인의 정신 작용처럼, 똑같은 하나의
얼굴이 갖가지 표정을 짓듯, 한 그루의
나무에 꽃과 위대한 목시록이 꽃을 피운다.
[이들은] 처음과 끝, 중간, 그리고 끝나지 않는,
영원한 것의 전형이고 상징이다.

『서시』(1805), VI. ll. 525~573

Imagination! lifting up itself
Before the eye and progress of my song
Like an unfathered vapour, here that power,
In all the might of its endowments, came
Athwart me. I was lost as in a cloud,
Halted without a struggle to break through,
And now, recovering, to my soul I say
“I recognise thy glory”. In such strength
Of usurpation, in such visitings
Of awful promise, when the light of sense
Goes out in flashes that have shewn to us
The invisible world, doth greatness make abode,
There harbours whether we be young or old.
.
The unfettered clouds are region of the heavens,
Tumult and peace, the darkness and the light,
Were all like workings of one mind, the features
Of the same face, blossoms upon one tree,
Characters of the great apocalypse,
The types and symbols of eternity,
Of first, and last, and midst, and without end.

The Prelude(1805), VI, ll. 525~573

이러한 묘사는 그러나 단순히 그가 알프스 산맥을 넘은 경험을 적은 것이라기 보다는 그의 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상상력의 특징을 이같은 은유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드 만은 위에 인용한 묘사에서 워즈워스에게 있어서 “의식이 외계의 사물과의 모든 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전적으로 홀로 그리고 자족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a possibility for consciousness to exist entirely by and for itself, independently of all relationship with the outside world, De Man 76)을 보고 있다. 이같은 주장을 펴는 비평가들은 워즈워스의 상상력은 자연과 융합된 것이라기 보다는 자연과 유리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시인으로서의 워즈워스는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자연과 융화되지 않고 자연으로부터 고립된 외로운 존재라고 본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시인으로서의 워즈워스에게는 상상력은 그를 모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리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연으로부터도 그를 유리시킨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시인으로서의 워즈워스의 상상력이 그를 자연과 인간으로부터 유리시켰으며, 또한 그를 인간 공동체로부터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일군의 비평가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광의(廣義)의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이며, 또한 신역사주의 비평가(new historicist)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비평가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제롬 J. 맥간(Jerome J. McGann), 앨런 류(Alan Liu), 그리고 머조리 레빈슨(Majorie Levinson)을 들 수 있다. 맥간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낭만적 이념: 하나의 비판적 탐구』(*The Romantic Ideology: A Critical Investigation*)가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은 마르크스(Marx)의 저서인 『독일의 이념』(*The German Ideology*)이라는 책의 이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마르크스주의적 비평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앨런 류는 1989년에 출판된 방대한 저서인 『워즈워스: 역사 의식』(*Wordsworth: The Sense of History*)에서 신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워즈워스를 읽고 있다. 머조리 레빈슨 또한 그녀의 『워즈워스의 전성기의 시: 네 편의 논문』(*Wordsworth's Great Period Poems: Four Essays*)이라는 저서에서 신역사주의적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이들 신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위에서 본 하트먼이나 블룸과는 다른 입장에서 워즈워스에게 나타난 상상력을 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워즈워스에게 있어 상상력은 그가 초기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 가지고 있던 열정을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으로 그 가치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워즈워스가 상상력에 것처럼 많은 가치를 부여한 것은 이같은 변절(?)이 있고난 후 그가 겪게 되는 정치적인 환멸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곧 워즈워스가 생각하는 상상력이 시인으로서의 워즈워스 개인 차원의 것일뿐, 공동체적인 연대 의식이 결여된 것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워즈워스가 내세우는 상상력은 공동체 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측면에서 단지 부르주아적 물신(bourgeois fetish)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워즈워스의 상상력에 대한 이같이 반대되는 두 가지의 견해는 그러나 그의 상상력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기 위해 워즈워스의 상상력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이를 왜곡함으로써 얻어진 결론이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하트먼과 드 만 등의 비평가들이 워즈워스의 상상력이 자연과는

유리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으로써 상상력의 초월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면, 후에 논의한 신역사주의적 비평가들은 이같은 초월주의 비평에 반기를 들으로써 이러한 초월주의 비평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워즈워스의 시와 상상력을 그가 살던 시대의 사회 여건과 관련시킴으로써 그의 시에 나타나는 역사의식의 결여를 필요 이상으로 부각한 셈이다. 이 두 입장은 따라서 자신들의 논지를 펴기 위해 사실을 지나치게 견강부회(牽強附會)함으로써 워즈워스를 있는 그대로 읽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최근에 나타난 생태적인 비평적 접근은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워즈워스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되는 비평이 안고 있는 결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 오던 워즈워스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같은 생태적 비평은 워즈워스를 <녹색>으로 읽음으로써 그의 상상력이 최근 우리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생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워즈워스가 가지고 있던 생태적 상상력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2. 워즈워스의 시에 대한 녹색적 읽기의 필요성

포스트모던 시대 또는 <포스트>의 시대라고 흔히 불리우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문학 작품은 지금까지의 읽기와는 다른 새로운 읽기가 요구된다. 문학 작품은 그것이 위대하면 할수록 새롭게 읽혀 이를 읽는 독자에게 새로운 해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새로운 감동이 따르게 마련이다. 문학 작품에 대한 이같이 새로운 해석과 감동은 문학 작품을 박물관의 진열품이 아닌 생명력이 있는 살아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같은 문학에 대한 일반론은 워즈워스의 작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모던 시대를 사는 독자에게 워즈워스를 새롭게 읽을 필요성이 더욱 더 절실한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이다. 이같은 새로운 읽기는 이제까지의 읽기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하트먼과 드 만 등이 행한 소위 워즈워스에 대한 초월주의적 읽기가 드러내는 워즈워스의 상상력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살펴 본 바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상상력에 대한 견해에서 우리는 이들이 다다른 상상력에 대한 이해는 자연을 <초월>하고 또한 <무시>하면서 얻어진 산물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이같은 견해는 자연 친화적(nature-friendly)이기 보다는 자연 적대적(nature-antagonistic)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경우이다. 이들의 이같은 상상력과 자연에 대한 견해는 워즈워스를 읽고 여기서 자연히 우러나온 결과이기 보다는 이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워즈워스에게 투사한 것이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적절할 것이다. 이는 워즈워스가 자신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워즈워스는 스스로를 <자연의 시인>(Poet of Nature)이라고 생각했으며, 셸리

또한 그를 그렇게 불렀다. 이같은 워즈워스에 대한 생각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까지도 이어져, 이 시대의 독자들은 워즈워스를 자연의 시인이라고 생각했다(Bate 9).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 워즈워스 자신이 스스로를 자연의 시인이라고 생각했는가를 살펴 보고, 그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타당한 것이라면, 그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한 대로 그를 다시 자연의 시인이 되게 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가 워즈워스에게 <자연의 시인>이라는 호칭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워즈워스가 1760년 경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the Industrial Revolution)의 초창기를 산 시인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2백여 년 전에 시작된 산업혁명과 시간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거리감을 가질 수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인간의 이성에 의해 발전된 기계 문명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역기능으로 우리는 이같은 기계 문명이 가져 온 인간의 비인간화와 소외라는 아주 심각한 현상을 초래했음 또한 지나칠 수 없다. 또한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해 필연적으로 초래된 환경의 오염과 천연 자원의 고갈은 산업 혁명기의 초반을 산 워즈워스 자신도 그의 작품에서 이미 예견한 바 있다.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오염과 자원의 고갈 그리고 인간의 인간에 대한 비인간화 등의 부작용은 그러므로 우리가 워즈워스의 작품에 나타나는 생태적 상상력을 더욱 높이 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 산업의 발달과 인간의 소외

영국의 낭만기는 산업 혁명이라는 이제까지 인류가 목격하지 못한 급격한 산업의 발달과 같은 시기에 있었던 문학의 시대 구분이다. 지금까지 인류는 1차 산업인 농업과 목축업에 주로 의지하는 산업 형태를 취하면서 살아 왔으나, 이제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 혁명은 지금까지의 농업-목축업이라는 산업 형태에서 벗어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2의 물질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던 때이다. 이같이 새로운 형태의 산업 형태는 증기 기관의 발명에 의해 산업 생산이 대량 생산 시대를 맞게 되었으며, 이같은 대량 생산 능력은 공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 방식을 가져오게 된다. 이같은 새로운 생산 형태는 무산 계급으로서의 도시 노동자의 출현을 가져 왔으며, 또한 이들의 도시 집중은 이제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산의 대량화에 따른 노동자의 노동 착취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곧 노동자의 소외를 불러일으킨다. 이같은 대량 생산은 농촌의 황폐화와도 정비례하는데, 워즈워스는 이같은 산업의 발달이 가져오는 역기능을 유의해서 보게 된다. 워즈워스의 시에 나타나는 도시 노동자들의 고된 삶에 대한 묘사는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시에서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가 도시 노동자들의 고된 삶을 외면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예를 「가여운 수잔의 환상」

(“The Reverie of Poor Susan”)이라는 시에서 보기로 하자.

가여운 수잔의 환상(幻想)

우드 스트리트 모퉁이에 해가 떠오를 때면,
목청 높여 우는 새장 속의 지빠귀 삼년 동안 노래 하고 있었다.
가여운 수잔이 이 곳을 지나가다
아침의 정적 속에 이 새의 노래를 들었다.

황홀한 그 노래 소리 — 어찌 된 일인가? 그녀는 본다
솟아나는 산, 나무들의 환상을.
빛나는 운무(雲霧)가 로스버리를 지나 미끄러져 가고,
강물이 치이프사이드의 골짜기로 줄줄 흐른다.

푸른 목장을 그녀는 본다, 골짜기의 한 복판에서,
우유통 들고 그녀가 자주 오르 내렸던 골짜기,
그리고 그녀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단 하나의 집,
비둘기 집 같은 유일한 작은 오막집을.

이것을 보고 그녀의 마음은 천국에 있다. 그러나 모두 사라진다.
안개도 강물도, 언덕도 그늘도,
시냇물은 흐르려 하지 않고, 언덕도 솟아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온갖 색채 모두 그녀의 눈에서 사라져 버렸다.

THE REVERIE OF POOR SUSAN

At the corner of Wood Street, when daylight appears,
Hangs a Thrush that sings loud, it has sung for three years:
Poor Susan has passed by the spot, and has heard
In the silence of morning the song of the Bird.

'Tis a note of enchantment; what ails her? She sees
A mountain ascending, a vision of trees;
Bright volumes of vapour through Lothbury glide,
And a river flows on through the vale of Cheapside.

Green pastures she views in the midst of the dale,
Down which she so often has tripped with her pail:
And a single small cottage, a nest like a dove's,
The one only dwelling on earth that she loves.

She looks, and her heart is in heaven: but they fade,
The mist and the river, the hill and the shade:
The stream will not flow, and the hill will not rise,
And the colours have all passed away from her eyes!

(De Selincourt 149)

이 시의 어조(tone)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이 시의 밑에

칼린 도시에서의 수잔의 고달픈 삶을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다. 물론 수잔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없지만, 추측컨대 그녀는 영국의 산업 혁명기에 돈벌이를 위해 시골에서 런던으로 올라온 공장 노동자로 여겨진다. 그녀는 런던의 중심가인 우드 가(街)(Wood Street)의 모퉁이에서 새장 속에 갇혀 있는 지빠귀의 노래 소리를 듣는다. 여기서 우리는 지빠귀가 수잔의 투사(投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새장에 갇힌 지빠귀 - 이는 도시의 공장에서 힘들고 고된 노동으로 하루 하루를 지내야 하는 수잔의 삶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그녀는 지빠귀의 노래를 듣고 그녀가 행복하게 살던 시골 생활을 머리에 떠올린다. 거기에는 푸른 목장이 있고, 그녀가 우유통을 들고 자주 오르 내리던 골짜기가 있다. 이런 시골 풍경이 런던의 치프사이드(Cheapside)가의 건물들과 겹쳐지는 환각을 경험한다. 거기에는 또한 비둘기집 같은 작은 오두막이 있다. 오두막은 도시의 큰 건물들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거처이지만, 비둘기집이라는 수식어가 풍기는 어감은 그러나 이처럼 보잘 것 없는 집이지만, 그곳은 오손도손 모여 사는 가족들의 따뜻한 정이 배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환상 속에서 수잔은 자신이 금세 축복이 충만한 천국에 와 있다는 착각을 하고 만다. 그러나 이같은 환상도 한 순간일 뿐, 이같은 고향의 환상은 곧 깨어지고 이내 그녀는 회색빛 도시의 때가 낀 건물들을 보게 된다. 수잔의 이같은 현실로의 복귀는 그녀가 듣던 지빠귀의 노래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절규이거나 울음으로 들리게 할 뿐이다.

산업 혁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편의와 효용성에 대한 욕망 추구를 도구적 이성으로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을 정복 내지는 파괴하고 그 대신에 인위적으로 얻어진 대량 생산된 상품을 그 자리에 대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에게 단지 편의의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을 단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는 견해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서 있음을 전제로 한데서 생긴 발상이다. 그러나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은 인간보다 우위에 있다. 이같은 자연을 인간의 편의만을 위해 개발하고 파괴한다면,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는 깨어지고, 자연은 인간에게 이에 대한 보복을 가해 올 수도 있다. 워즈워스는 인간이 자연을 효용성과 유용성의 측면에서만 보려는 태도를 개탄한다. 이같은 그의 생각은 그의 「우리는 너무나 세속에 물들어 있네」("The World is Too Much with Us")라는 시에서 읽을 수 있다.

우리는 너무나 세속에 물들어 있네

우리는 너무나 세속에 물들어 있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벌고 쓰느라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소진하네.
 거의 아무 것도 우리는 보지 못 하네 우리의 것인 자연에서,
 우리는 내동댕이 치네 우리의 마음을, 마치 더러운 선물이라도 되듯!
 달을 향해 젓가슴을 드러낸 이 바다,
 언제라도 으르렁댈 수 있지만, 잠든 꽃처럼
 오무러진 바람,

이것과 이 모든 것과, 우리는 조화를 이루지 못 하고 있네.
 우리는 자연에서 감동을 느끼지 못 하네. — 위대한 신이여! 내가 차라리
 낡은 신앙의 젖줄을 빨고 사는 이교도라도 되었으면 좋겠소.
 그렇게 되어 내가 이 즐거운 초원에 서 있으면
 나를 덜 외롭게 만들 광경이 얼핏 눈에 띄고,
 바다에서 솟아 오르는 프로테우스를 보기도 하고,
 또는 늙은 트리톤이 꽃다발로 꾸민 소라 나팔을 부는 것을 듣기도 할 수 있으련만.

THE WORLD IS TOO MUCH WITH US

The world is too much with us; late and soon,
 Getting and spending, we lay waste our powers;
 Little we see in Nature that is ours;
 We have given our hearts away, a sordid boon!
 This Sea that bares her bosom to the moon,
 The winds that will be howling at all hours,
 And are up-gathered now like sleeping flowers,
 For this, for everything, we are out of tune;
 It moves us not. — Great God! I'd rather be
 A Pagan suckled in a creed outworn:
 So might I, standing on this pleasant lea,
 Have glimpses that would make me less forlorn;
 Have sight of Proteus rising from the sea;
 Or hear old Triton blow his wreathéd horn.

이 시에서 워즈워스는 세속적이라고 불리우는 효용 일변도적인 사고 방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조용하지만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효용 추구는 우리의 정신 활동의 또 하나의 측면인 상상력과는 대조를 이룬다. 효용 추구가 실리적이라면, 상상력은 직접적인 실리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인간의 원초적인 창조 능력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상력의 근본은 효용성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이것과 정반대되기 때문이다. 워즈워스는 이같은 상상력의 근본을 효용과 실리 추구의 측면과는 반대 편에 있는 개발되지 않고 천연 그대로 있는 자연에서 찾고 있다. 이 경우 자연은 우리가 효용 가치를 따질 수 있는 한정적인 의미의 자연이 아니고 값이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총체적이고 미분화된 상태로서의 자연이다. 이같은 자연관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효용 일변도의 자연관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신화에 나오는 총체적인 통합체로서의 자연이다. 따라서 워즈워스는 물질 만능적이고 효용 중심적인 현대인이 자연에서 감동을 느끼지 못 하는 것을 한탄하며, 차라리 이교도였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신화에 나타난 자연 속에서 살아 숨쉬는 신들을 보고 싶어한다. 이교도들이었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의 신화를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과 융화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도구적 이성에 의한 산업의 발달

은 인간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결과 인간이 문명과 산업 발달로 인해 이의 노예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아이러니를 야기시켰다. 인간 지능의 발달과 이에 따른 기계 문명의 발전은 따라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단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거꾸로 자신의 욕망의 산물인 물질 문명의 노예로 전락하는 결과가 되었다.

4. 워즈워스와 자연

워즈워스와 자연과의 관계를 말할 때 우리는 그가 자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짚고 넘어 가야 한다. 워즈워스는 자연에 대해 노래한 시인임에 틀림없으나, 그가 쓴 시는 단지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노래하는 데서 끝나지는 않는다.

기계론적인 사고 방식에 의하면, 자연은 그저 하나의 기계일 뿐, 거기에는 생명이 있거나 또는 자연과 인간과는 어떤 유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을 인간의 필요에 의해 개발하고 이용하며, 또한 최대한의 이용 가치를 자연으로부터 얻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워즈워스는 자연을 이와 같이 기계론적인 입장에서 보거나 또는 자연을 효용의 측면에서만 본 것은 아니다. “그에게 즐거움과 평화를 준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생명력>이었다”(It was not the beauty of Nature which brought him joy and peace, but the *life* in Nature, Kortelling 102)라고 캐롤라인 스퍼전(Caroline Spurgeon)은 말한다. 이처럼 자연 속에 있는 생명력을 보는 것은 바로 워즈워스의 신비주의 철학에 그 근거가 있다. 워즈워스의 신비주의적 경향을 지적한 스퍼전의 말을 좀 더 살펴 보자.

워즈워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은 아주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즉, 워즈워스는 마음이 순수한 시인이었으며, 자연을 사랑했고, 언덕과 계곡과 구름과 꽃의 아름다움을 명상하면서 커다란 기쁨과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들이 이런 기쁨을 발견하도록 권면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조용하면서도 번거롭지 않은 삶을 살았으며, 다른 사람들도 이같은 삶을 살 것을 권장했다. 그는 또한 순박하고 절제있는 삶의 원칙을 역설했다. 위에서 본 이와 같은 워즈워스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론에서 사실인 것은 그가 자연을 사랑했다는 사실밖에는 없다. 워즈워스는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었고, 신비주의자였고,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명석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단한 감성의 소유자였다. 그는 열정적인 삶을 살았으며, 장려와 미려의 삶을 살 것을 역설했다. (중략) 그는 자신이 이런 생명력을 [자연에서] 보았으며, 그는 이를 알고 또한 느꼈다. 그리고 [자연 속에 이런 생명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지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모든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했다. (Kortelling 102)

A statement about him of the following kind would be fairly generally

accepted as the truth. Wordsworth was a simple-minded poet, with a passion for nature, he found great joy and consolation in the contemplation of the beauty of hills and dales and clouds and flowers, and urged others to find this too; he lived, and recommended others to live a quiet retired unexciting kind of life, and he preached a doctrine of simplicity and austerity. Now, except that Wordsworth had a passion for Nature, there is not a single true statement here. Wordsworth was not only a poet, he was also a seer, a mystic and a practical psychologist, with an amazingly subtle mind and an unusual capacity for feeling; he lived a life of excitement and passion, and he preached a doctrine of magnificence and glory ... He himself had caught a vision of that life, he knew it and felt it, and it transformed the whole existence for him.

스퍼전의 이같은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워즈워스 자신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생명력에 대해 말한 바를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는 자연 속에 있는 생명력을 생물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무생물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나는 가끔 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인간과는 별도로] 우리 밖에 존재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영적인 속성과는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과 똑같은 특질을 가진 것으로 느끼면서 이들과 교감했다. 이같은 생각에 깊숙이 빠져 학교에 가면서도 담장을 만져 보거나 나무를 만져 보면서 이런 생각에서 빠져 나와 현실로 되돌아 오곤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Curtis 61)

I was often unable to think of external things as having external existence, and I communed with all that I saw as something not apart from, but inherent in, my own immaterial nature. Many times while going to school have I grasped at a wall or tree to recall myself from this abyss of idealism to the reality.

워즈워스의 이같은 신비주의적인 자연관은 언뜻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연을 단지 기계론적으로 보고, 또한 이를 단지 효용가치의 측면에서 본 결과 자연을 황폐화하고 고갈시켜, 결국 자연의 자생력을 죽이고 공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공업화와 산업화의 폐해를 경험한 현대인으로서 워즈워스의 이같은 자연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자연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처럼 보인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워즈워스가 가진 생각은 최근에 대두된 생태학적 관심과 궤를 같이 한다.

생태학(生態學)은 영어의 ecology를 번역한 말이다. 이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이것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집이란 의미인 *oikos*와 학문을 뜻하는 *logia*가 합쳐서 된 단어이다. 그러므로 생태학은 쉽게 말하면, “삶의 터전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시모네는 생태학을 “생물과 그 환경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시모네 6)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이같은 시모네의 정의는 좁은 의미의 생태학의 정의라 할 수 있다. 생태학이라는 용어는 1866년 독일의 동물학자인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Bate 36). 그 몇 년 후인 1870년에 해켈은 생태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생태학이란 용어로 우리는 자연 질서에 대한 지식 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곧 동물이[자신의 주위에 있는] 무기물로 된 환경과 유기물로 된 환경과 맺는 총체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동물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동식물과의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모든 관계를 포함한다. 요컨대 생태학이란 다윈(Darwin)이 생존 경쟁의 조건이라고 부른 모든 복잡한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Bate 36)

By ecology we mean the body of knowledge concerning the economy of nature — the investigation of the total relations of the animal both to its inorganic and to its organic environment; including above all, its friendly and inimical relations with those animals and plants with which it comes directly or indirectly into contact — in a word, ecology is the study of all those complex interrelations referred to by Darwin as the conditions of the struggle for existence. (Bate 36)

이처럼 해켈은 동물과 환경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총체적인 관계(total relations)에 관심이 있었다. 해켈이 동물학자였기 때문에 그가 생태학을 정의함에 있어 동물을 그의 사유의 중심에 놓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같은 그의 생태학에 대한 정의에서 <동물>이라는 말 대신에 <인간>이라는 말을 바꾸어 놓아도 이같은 그의 정의에는 하등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해켈이 생태학을 동물 중심으로 정의한지 백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가 쓴 <동물> 대신에 <인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이는 그가 생태학을 정의할 때 당시에는 동물보다는 훨씬 우월적인 지위에 있던 인간이 이제는 단지 하나의 동물로 격하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해켈이 정의한 생태학을 다시 정의한다면, 우리는 생태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학은 인간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총체적이고 복잡한 관계의 연구이다”라고. 이같은 정의에서 우리는 생태학이 총체적(holistic)인 학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워즈워스에게 있어서도 자연은 분석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미분화되고 총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연의 생명력을 지성에 의한 분석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자연이 서로 연결돼 있는 총체적인 존재이므로, 이의 어느 한 부분을 훼손하는 것은 곧 다른 부분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워즈워스는 범신론자(pantheist)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신비주의자(mystic)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그러면 그의 어떤 면이 그를 신비주의자로 그리고 범신론자로 보이게 하는가? 이를 좀 더 살펴 보기로 하자.

5.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의 자연

워즈워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생각은 자연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

아 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이다. 자연 속에서는 수선화가 피고, 논에서는 거머리가 자라며, 또한 생명체인 거머리와 인간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러한 생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는 돌과 바위같은 것들도 지구라는 생명체와 연결돼 있으므로 이들 또한 생명체라고 워즈워스는 생각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가 자주 쓰는 <바람>의 이미지와 <숨결>의 이미지에 의해 가장 잘 드러난다. 그는 『서시』(The Prelude) 제1권에서 바람과 숨결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오, 이 산들 바람에 축복이 있도다,
푸른 초원, 하늘과 구름에서 불어 오는
이 바람은 내 뺨을 가볍게 스치면서도,
내가 느끼는 기쁨을 아랑곳하지도 않는다.
오, 어서 오라, 전령이여! 다정한 벗이여!
오랫동안 영어(囹圄)의 나날을 보냈던 감옥에서 풀려나,
저 아득한 도시의 성벽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어,
구속을 떨쳐 버리고 풀려난 포로처럼 그대에게 인사하노라.
이제 나는 풀려나서 자유로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노라.
어떤 거처가 나를 맞아줄 것이며, 어느 계곡이
나의 거주지가 될 것이며, 어느 숲 속에서
나의 보금자리를 꾸밀 것이며, 어떤 시냇물이
자장가를 불러 나를 쉬게 할 것인가?
대지가 내 앞에 확연히 열려 있구나 — 기쁜 마음으로,
내가 느끼는 자유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내 주위를 둘러 본다. 그리고 내가 택한 안내자로는
떠도는 구름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으리니,
나는 길을 잘 못 들지 않으리라. 깊은 내 숨 다시 쉬니 —
황홀한 생각과 산처럼 깊어진 마음이
내게로 밀려 온다. 내 자신의 거추장스런 자아(自我)라는 짐이
마치 기적의 선물처럼
떨쳐 버려진다.
나를 몇 날이고 짓누르던 생각이.
그런 생각은 내 것도 아니고 내게 맞는 생각도 아니다.

『서시』(1805), I, ll. 1~25

Oh there is blessing in this gentle breeze,
That blows from the green fields and from the clouds
And from the sky; it beats against my cheek,
And seems half conscious of the joy it gives.
O welcome messenger! O welcome friend!
A captive greets thee, coming from a house
Of bondage, from yon city's walls set free,
A prison where he hath been long immured.
Now I am free, enfranchised and at large,

May fix my habitation where I will.
 What dwelling shall receive me, in what vale
 Shall be my harbour, underneath what grove
 Shall I take up my home, and what sweet stream
 Shall with its murmurs lull me to my rest?
 The earth is all before me — with a heart
 Joyous, nor scared at its own liberty,
 I look about, and should the guide I chuse
 Be nothing better than a wandering cloud
 I cannot miss my way. I breathe again —
 Trances of thought and mountains of the mind
 Come fast upon me. It is shaken off,
 As by miraculous gift 'tis shaken off,
 That burthen of my own unnatural self,
 The heavy weight of many a weary day,
 Not mine, and such as were not made for me.

The Prelude(1805), I. ll. 1~25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산들바람(breeze). 산들바람은 신의 입김이기 때문에 만물에게 기(氣)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산들바람 속에는 신의 축복이 있다. 이 산들바람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서도 불어오고, 대지의 푸른 초원에서도 불어온다. 이 산들바람은 또한 이 시의 화자(이며 작가이기도 한 워즈워스)의 뺨을 스치면서 그에게 생명의 축복과 삶의 기쁨을 전해 주는 전령이기도 하다. 생명의 축복을 가져오는 산들바람은 또한 자유의 사자(使者)이기도 하다. 생명은 자유이며, 축복이고, 휴식이다. 이 시의 화자는 이같은 자연이 가져다 주는 생명력을 들이키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숨을 쉰다. 이러한 숨은 곧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 해럴드 블룸(Harold Bloom)에 따르면 영혼은 의미하는 psyche라는 단어는 숨쉴다는 의미를 가진 인도 유럽어의 *bhes*라는 어원에서 나온 것이다(Bloom 1). 그러므로 대지 위로 부는 산들바람은 대지에 생명을 주는 자연의 숨결인 셈이다(Abrams 40). 이처럼 인간이 자연의 숨결을 마시는 것(호흡하는 것)은 곧 자연의 생명력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은 하나의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지구로 대표되는 자연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 또한 자연의 생명력 속에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워즈워스의 생각은 과학이 발달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언뜻 보면 단지 시적 상상력으로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 지구와 자연을 그저 기계론적으로만 보기를 거부하는 과학자들이 등장함으로써 워즈워스의 이같은 생각은 단지 시적 상상력의 단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과학자들의 생각을 신과학(New Science)라고 부르는데, 신과학 사상은 워즈워스의 생각과 놀라울 정도로 가깝다. 특히 이러한 신과학 운동을 하는 과학자 중에서 제임스 E. 러블록(James E. Lovelock)의 생태학적 관심을 살펴보는 것은 워즈워스를 새롭게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러블록은 전형적인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받아 들여지던 기계론적인 지구관을 배격한다. 그는 화학자이며 또한 의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과학자이다. 그는 영국의 콘월 주의 콤브 방앗간이라는 헛간을 개조한 연구실에서 독자적인 과학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과학자는 아니다. 그는 영국 해양 생물학회 회장이며, 또한 런던 왕립학회 회원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의 요청으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탐사계획인 바이킹(Viking) 위성 발사 계획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예일(Yale)대학교와 베일러(Baylor)대학교 의과 대학에서 강의했으며, 하버드(Harvard) 대학교에서 록펠러 펠로우(Rockefeller Fellow)로 강의하기도 했다. 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이처럼 좀 장황하게 적은 이유는 그가 제시하고 있는 지구에 대한 가설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의 과학자로서의 경력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하등의 결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는 1979년에 나온 『가이아: 생명체로서의 지구』(*Gaia: a New Look at Life on Earth*)라는 책에서 가이아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했는데, 이 책은 곧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그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그의 말로 요약될 수 있다.

[가이아의 가설은] 지구의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새로운 직관이다. 이같은 직관으로부터 지구의 살아있는 물질인 공기와 바다, 그리고 육지가 단일한 유기체인 하나의 복합적인 조직을 이루고 있으며, 이같은 조직은 지구를 살기에 적합한 장소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가설, 즉 모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Encyclopedia Britanica, Vol 16, 502

[The Gaia hypothesis is] a new insight into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living and the inorganic parts of the planet. From this has arisen the hypothesis, the model, in which the Earth's living matter, air, oceans, and land surface form a complex system which can be seen as a single organism and which has the capacity to keep our planet a fit place for life.

Encyclopedia Britanica, Vol. 16, 502

그는 이 책에서 가이아의 이론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의 가이아 이론은 열띤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처음에는 과학적 탐구의 변방에 머물러 있던 그의 가이아 이론은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많은 국제 회의의 주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가이아(Gaia)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지구의 살아있는 여신으로 믿었던 신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이 단어가 풍기고 있는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러블록은 지구를 하나의 살아 있는 전체로 본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에서 발상을 얻어 지구에 대한 하나의 종합적인 개념을 제시한다. 러블록의 이러한 가설은 지구 자체와 그 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장래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러블록은 가이아의 여러 종(種)들과 물리적인 환경이 어떻게 단일하고 나누어지지 않는 자기 조절 과정으로 진화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한다. 그는 이

에서 더 나아가 가이아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스트레스(stress)를 어떻게 견디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인간을 말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이처럼 인간을 말할 때 쓰는 용어를 지구에 대해 쓴다는 것은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가이아의 이론이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통합체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가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지구를 말할 때 쓴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 지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의 결과로 생기는 현상들은 우리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생물들의 멸종, 공해, 그리고 화석 연료의 연소와 그로 인해 생기는 온실 효과, 산림의 파괴, 프레온(Freon) 가스에 의해 생기는 오존 층(Ozone layer)에 생기는 구멍 등이 이같은 예들이다. 이같은 현상들은 가이아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이아의 생명력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가이아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적응력이 있으며, 또한 탁월한 탄력성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삶과 지구는 함께 진화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러브록은 우리에게 가이아를 조용히 관찰하라고 권한다. 오래 그리고 조용히 가이아를 관찰하면 우리는 가이아가 공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또한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새로운 과학인 지구생리학(geophysiology)의 탄생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생리학이라는 학문은 살아 있는 생물체를 연구하기 위한 학문 체계인데, 그가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구생리학이라는 학문 또한 생소하게 들리지 않는다. 러브록의 이같은 주장은 그러나 현실을 연구하는 과학자의 말이라기보다는 상상력 속에 사는 시인의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가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나무랄 데 없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의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의 과학이 오직 현상 자체에만 매달려 넓고 깊은 시야를 가지지 못했음을 환기시킴으로써 지구에 대한 좀더 깊고 넓은 안목을 촉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따라서 지구를 하나의 무생물로만 보아 온 지금까지의 과학자들의 견해를 수정하여 생명력을 가진 지구를 치유하고 보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과학자의 태도를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워즈워스 또한 자연을 살아 있는 것으로 보면서, 자연은 성장하고 유기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Purkis 80). 그의 이같은 생각은 『서시』(1805)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어린애의 묘사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

갓난 아기는 결코 소외되거나 당황하거나 풀이 죽은 존재가 아니다.
 갓난 아기의 핏줄에는 자연의 끌어 당기는 힘이
 모두 퍼져 있어 그를 세계와 연결해 주는 자연과는
 모자간의 유대로 연결돼 있다.
 이처럼 갓난 아기는 하나의 존재자로서
 <능동적인> 우주 속에서 하나의 거주자로 활력있게 살아 간다.
 그는 자연으로부터 대부분을 받아 들이지만,
 완전히 만족하지 않더라도 그 대부분을 다시 되돌려 준다.
 느낌은 그에게 활력을 주기 때문이다 —

슬픔이나 기쁨, 두려움과 즐거움 등의
 감정을 이미 모두 느끼는 — 이 어린애의 마음은
 우주적인 마음의 대리인이 되어
 창조자와 수용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자신이 보는 외계의 사물과 협동하면서
 창조한다.

『서시』 (1805), II, ll. 261~275

No outcast he, bewildered and depressed;
 Along his infant veins are interfused
 The gravitation and the filial bond
 Of Nature that connect him with the world.
 Emphatically such a being lives,
 An inmate of this *active* universe.
 From Nature largely he receives, nor so
 Is satisfied, but largely gives again;
 For feeling has to him imparted strength,
 And — powerful in all sentiments of grief,
 Of exultation, fear and joy — his mind,
 Even as an agent of the one great mind,
 Creates, creator and receiver both,
 Working but in alliance with the works
 Which it beholds.

The Prelude(1805), II, ll. 261~275

능동적인 우주 속에서 사는 어린애 — 그는 살아 있는 세계로서의 자연과 연결되어
 져 있기 때문에 그의 혈관에는 자연의 생명력이 흐른다. 그가 보는 세계는 그러므로
 자연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창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같은 위
 즈워스의 생각은 그가 일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1805년 그의 동생인 존
 (John)의 죽음은 이같은 그의 생각에도 변화를 가져 왔다고 퍼키스는 주장한다
 (Purkis 82).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즈워스에게 자연이 살아 있다는 생각과 이러한 살
 아 있는 자연이 그 속에 사는 인간과 끊임없이 끊임 없이 연결돼 있다는 신념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자연은 단지 이미
 만들어진 자연(*natura naturata*)이 아니라 자연은 살아서 움직이며 숨쉬고 창조하는
 자연(*natura naturans*)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러한 자연 속에는 세상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영혼(*anima mundi*)이 있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위즈워스가 자연에 대
 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틴턴 수도원」(“Tintern
 Abbey”)에서는 “[자연 속에] 아주 깊숙히 침잠해 있는 영혼”(spirit far more inter-
 fused)이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서시』에서는 “우주의 지혜와 혼”(wisdom and spirit
 of the universe)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또한 「우리는 일곱이
 예요」(“We are Seven”)에서는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력의 연계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 일곱이에요

— 천진 난만한 어린 아이
 그는 숨을 가볍게 들이 쉬고
 사지(四肢)로 생명을 느낀다.
 그가 죽음을 어떻게 알라?

오두막집에 사는 작은 소녀 하나를 나는 만났다.
 그녀는 여덟 살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머리는
 온통 곱슬이었다.

그녀에게서는 촌티가 뚝뚝 떨어졌으며,
 옷도 남루하게 입었다.
 그녀의 눈빛은 맑디 맑았다.
 — 그녀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에 들었다.

“애야, 형제 자매가
 몇이나 되니?”
 “몇이나구요? 모두 일곱이에요”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는 의아스럽다는 듯이 나를 쳐다 보았다.

“그들이 어디 있니? 얘기해 주렴.”
 그녀는 대답했다. “우리는 일곱이에요.
 둘은 콘웨이에 살고,
 둘은 바다로 갔어요.

“둘은 교회 공동 묘지에 누워 있어요,
 언니와 오빠는요.
 그리고 교회 묘지 오두막집에서 나는
 그들 가까워서 엄마랑 같이 살아요.”

WE ARE SEVEN

— A simple Child,
 That lightly draws its breath,
 And feels its life in every limb,
 What should it know of death?

I met a little cottage Girl:
 She was eight years old, she said;
 Her hair was thick with many a curl
 That clustered round her head.

She had a rustic, woodland air,
 And she was wildly clad:
 Her eyes were fair, and very fair;
 — Her beauty made me glad.

“Sisters and brothers, little Maid.

How many may you be?"
 "How many? Seven in all," she said,
 And wondering looked at me.

"And where are they? I pray you tell."
 She answered, "Seven are we;
 And two of us at Conway dwell,
 And two are gone to sea."

"Two of us in the churchyard lie,
 My sister and my brother,
 And, in the churchyard cottage, I
 Dwell near them with my mother."

이렇게 말하는 어린 소녀에게는 자연의 생명력과 활력이 있을 뿐, 죽음이라는 개념을 그녀는 가져 본 적이 없다. 그녀는 죽어서 교회의 묘지에 묻혀 있는 동기간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시의 화자가(그는 또한 위즈워스이기도 하다) 죽어서 교회에 묻혀 있는 동기간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녀는 이를 완강히 부인한다. 이는 그녀에게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너희 동기간은 그러면 몇이나" 하고 내가 물었다.
 "너희 중 둘이 천국에 있다면서?"
 작은 소녀는 즉시 대답했다.
 "아저씨! 우리는 일곱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죽었는 걸. 둘은 죽었던 말이야!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어!"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그래도
 끝까지 작은 소녀는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말했다. "아니예요, 우리 형제는 일곱이에요!"

"How many are you, then," said I,
 "If they two are in heaven?"
 Quick was the little Maid's reply,
 "O master! we are seven."

"But they are dead; those two are dead!
 Their spirits are in heaven!"
 'Twas throwing words away; for still
 The little Maid would have her will,
 And said, "Nay, we are seven!"

6. 자연과 인간의 연대성과 도덕성

이처럼 워즈워스의 시에서는 자연의 숨결과 맥박이 인간의 생명의 원천이 된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따로 따로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과 인간은 하나의 생명줄로 연결된 셈이다. 이같은 워즈워스의 생각은 러블록이 말하는 가이아의 원리와 같다. 이같은 그의 생각은 『서시』에서 다음과 같은 묘사에 의해 드러난다.

나는 모든 것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 퍼져 나가는 것을
느끼고서야 만족할 수 있었다.
모든 움직이는 것에도, 그리고 정지해 있는 듯이 보이는 것에도,
인간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저 멀리에도 있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느껴지는 모든 것에도.
약동하고 도약하고 합성을 지르고 노래하고
기쁨에 찬 공기를 진동시키고, 파도 밑을
끄러지는 모든 것, 그렇다, 파도 자체와
바다의 심연 속에도. 내가 느낀 황홀감이
어떠했는지를 의심하지 마라. 나는 모든 것을 이어주는
하나의 생명력을 보았으며, 그것이 기쁨임을 실감했기에.
『서시』(1805), II. ll. 418~430

I was only then
Contented when with bliss ineffable
I felt the sentiment of being spread
O'er all that moves, and all that seemeth still,
O'er all that, lost beyond the reach of thought
And human knowledge, to the human eye
Invisible, yet liveth to the heart,
O'er all that leaps, and runs, and shouts, and sings,
Or beats the gladsome air, o'er all that glides
Beneath the wave, yea, in the wave itself
And mighty depth of waters. Wonder not
If such my transports were, for in all things
I saw one life, and felt that it was joy.
The Prelude(1805), II. ll. 418~430

자연과 인간이 하나의 생명으로 연계돼 있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물론 인간이 자연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사람도 자연의 생명력의 일부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이같은 자연과 인간을 잇는 생명력을 훼손하는 것은 우주적이고 전지구적인 생명력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

로 죄를 짓는 것임을 의미한다. 워즈워스는 『서시』에서 이를 “도덕적인 생명력(a moral life)”이라고 부른다.

모든 자연의 존재, 바위, 열매 또는 꽃,
길 위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돌에게서 까지도
나는 도덕적인 생명력을 느꼈다 — 나는 이들이 느낌이 있거나
또는 어떤 감각과 연계돼 있다고 생각했다. [자연의] 거대한 통합체는
[그 속에] 하나의 살아 있는 영혼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본 모든 사물은 내적인 의미를 가지고 숨쉬고 있었다.
『서시』(1805), III. ll. 124~129

To every natural form, rock, fruit or flower,
Even the loose stones that cover the highway,
I gave a moral life — I saw them feel,
Or linked them to some feeling. The great mass
Lay bedded in a quickening soul, and all
That I beheld respired with inward meaning.
The Prelude(1805), III. ll. 124~129

워즈워스가 생물뿐 아니라 무생물도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서 도덕적 생명력을 느꼈다는 사실은 그를 다른 시인이나 작가들과 근본적으로 구별짓게 하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그의 생각은 그의 사상의 근거를 이루는 것으로 그의 여러 시에 나타난다. 이같은 그의 생각은 특히 「블레이크 노파와 해리 길」(“Goody Blake and Harry Gill”)이라는 시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이 시에는 “실화”(a true story)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같은 부제를 붙임으로써 그가 이 시에 사실성을 제고하려고 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시가 단순히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이 시에서 일어난 일이 그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자 한다. 워즈워스는 이 시의 소재를 에라스무스 다윈(Erasmus Darwin, 진화론을 주장한 Charles Darwin의 조부임)이 쓴 『동물 생리학: 유기적 생명체의 법칙』(*Zoonomia; or, The Laws of Organic Life*)(1794~1796)이라는 책에서 얻었다(Stillinger 501). 이 시는 블레이크 노파가 어떻게 하여 자연의 섭리를 어긴 해리 길(Harry Gill)을 벌받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워즈워스에게 있어 자연은 단지 도구적인 물질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을 그는 이 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블레이크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 불도 지피지 않은 작은 오두막에서 쓸쓸히 혼자 사는 불쌍한 노파이다. 춥고 음산한 겨울, 날은 점점 추워져 추위가 그녀의 뼈 속까지 파고든다. 그녀의 이웃에는 부자인 해리 길(Harry Gill)이 살고 있다. 그녀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여 길의 생울타리로 가서 마른 나뭇가지를 몰래 가져다가 불을 때곤 했다. 길은 이를 눈치채고 있었다. 된 서리가 내린 어느 추운 겨울 밤, 블레이크 할머니는 추위를 이기기 위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길의 생울타리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었다. 이를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해리는 블레이크 할머니를 덮쳤다. 그러나 이같은 해리의 행동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물인정한 행동이다. 길이 블레이크 할머니를 붙잡고 혼을 내자 블레이크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녀는 기도했다. 그녀의 바짝 마른 손을 합장하고서,
그러는 사이 해리는 그녀의 팔을 내내 붙잡고 있었다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내치지 않는 분이시여,
그 [해리] 의 몸에 다시는 온기가 들지 않게 해 주소서!”
싸늘한 달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비추고 있었고,
노파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
젊은 해리는 그녀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몸에서 온기가 싹 가시는 것을 느끼면서 돌아섰다.

그는 아침 내내 불평하고 다녔다
몸에 온기가 없고 오한을 느낀다고.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깃들었으며, 그의 가슴은 슬픔으로 가득찼다.
오호라! 해리에게 저주가 온 날이여!
그날 그는 승마복을 한 벌 껴입었어도,
전혀 온기를 느끼지 못 했다.
목요일에는 승마복을 한 벌 더 껴 입었고,
일요일이 되자 그는 승마복 세 벌을 껴 입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쓸데 없는 일.
담요를 겹겹으로 몸에 두르고 있어도
그의 턱과 이는 덜덜 떨렸다
마치 바람에 덜컹거리는 문처럼.
그리고 해리는 몸이 여위어 갔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모두 말했다.
그가 목숨을 부지하는 한
그는 결코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고.

She prayed, her withered hand uprearing,
While Harry held her by the arm —
“God! who art never out of hearing,
O may he never more be warm!”
The cold, cold moon above her head,
Thus on her knees did Goody pray;
Young Harry heard what she had said:
And icy cold he turned away.

He went complaining all the morrow
That he was cold and very chill:
His face was gloom, his heart was sorrow,
Alas! that day for Harry Gill!
That day he wore a riding-coat,
But not a whit the warmer he:

Another was on Thursday brought,
 And ere the Sabbath he had three.
 'Twas all in vain, a useless matter,
 And blankets were about him pinned;
 Yet still his jaws and teeth they clatter,
 Like a loose casement in the wind.
 And Harry's flesh it fell away;
 And all who see him say, 'tis plain,
 That, live as long as live he may,
 He never will be warm again

자연은 이처럼 인간에게 생명력을 줄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유대 관계에도 도덕성을 부여한다. 해리가 블레이크 노파에게 보여준 냉냉함은 곧 그에게 저주가 되어 그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고 만다. 해리는 그와 블레이크 노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신의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富)를 단지 사유재산의 차원에서만 생각함으로써 블레이크 노파가 일어 죽든 말든 그가 간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연은 이같은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처럼 냉랭한 마음 때문에 일생 동안 온기를 느끼지 못 하고 살아야 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처럼 위즈워스에게 있어 자연은 단지 방관자의 위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도덕적인 가치까지를 보여주는 교사가 되기도 한다.

7. 맺는 말

위즈워스에게 있어 자연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는 자연을 기계론적으로 보거나 유용론적으로만 보지는 않았다. 기계론적인 입장에서 자연을 볼 경우, 자연은 일정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조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마치 지구가 인간이나 그 속에 존재하는 생물들과 어떠한 교류나 교통도 없이 이를 하나의 작동하는 조직처럼 보는 입장이다. 지구를 유용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이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구를 보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인간의 이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만 지구를 보는 것으로 이 역시 지구에 대한 정당한 관심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즈워스는 위의 이같은 두 가지 입장을 모두 배격하면서 지구를 하나의 살아 숨쉬고 성장하는 실체로 보았으며, 또한 지구가 인간과 상호 교섭하면서 생성해 나가는 실체로 생각했다. 위즈워스의 이같은 생각은 후기 하이데거(later Heidegger)의 사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인간 또한 우주의 모든 생물체나 무생물체와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반인간 우위주의(anti-anthropocentrism)와 궤를 같이한다. 이같은 위즈워스의 생각은 그의 시에서 잘 드러난다. 위즈워

스는 그의 시에서 공해라든가 자연 훼손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자연 속에서 숨쉬는 영(靈)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하게 하는 반면, 자연 또한 인간과 동등하거나 또는 인간보다 우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근래 우리가 경험하는 공해라든가 자연의 무분별한 훼손은 따지고 보면, 자연을 인간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단지 유용성이나 기계론적인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을 인간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 놓을 경우 인간은 자연과의 교섭에서도 인간간의 교섭에서나 마찬가지로 도덕성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이같은 워즈워스의 생각은 「블레이크 노파와 해리 길」이라는 시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 그는 이 시에서 몰인정한 해리를 자연이 징벌하여 그가 다시는 온기를 느끼지 못 하게 함으로써, 그를 인간가족으로부터 추방시키고 만다. 그가 느끼는 이같은 한기(寒氣)는 그가 승마복을 세 겹이나 껴입고 담요를 겹겹으로 두르고 있어도 가시지 않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인간이 인간에 대해 가지는 온기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온기임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해리의 몰인정을 자연이 응징한다는 사실은 자연이 단지 인간과는 아무 관계 없이 동떨어진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판단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가 생태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지구와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생물/무생물과의 역동적인 관계에 주안점이 있지만, 이는 따지고 보면 지구와 생물/무생물간의 생물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의 문제이다. 지구 위에 존재하는 다른 생물 또는 무생물은 단지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서로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에게 공해 등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이는 단순히 이들에게만 폐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같은 폐해는 곧바로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워즈워스의 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과 자연은 서로가 서로에게 효용성의 측면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서로가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워즈워스가 자연에 대해 가졌던 이같은 생태적 상상력에서 현대의 자연 경시 내지는 자연 훼손이 가져올 재앙을 미리 보고, 이를 막을뿐만 아니라, 자연의 엄청난 복수를 막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가 최근에 보는 엘 니뇨나 라 니냐, 또는 오존층의 파괴 등으로 야기되는 기상 이변은 이같은 자연 훼손의 결과라는 과학자들의 지적은 우리로 하여금 워즈워스의 생태적 상상력을 새로 읽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시모네, 도미니크. 『생태학: 인간 회복을 위하여』. 정 문화 옮김. 서울: 한마당, 1984.
- Abrams, M. H. "The Correspondent Breeze: A Romantic Metaphor." In M. H. Abrams, ed. *English Romantic Poets*. 2nd ed. New York: Oxford UP, 1975.
- Bate, Jonathan. *Romantic Ecology: Wordsworth and the Environmental Tradition*. London: Routledge, 1991.
- Bloom, Harold. *Poetry and Repression: Revisionism from Blake to Stevens*. New Haven: Yale UP, 1976.
- Curtis, Jared, ed. *The Fenwick Notes of William Wordsworth*. London: Bristol Classical Press, 1993.
- De Man, Paul. "Intentional Structure of the Romantic Image." In Harold Bloom, ed. *Romanticism and Consciousness: Essays in Criticism*. New York: Norton, 1970.
- De Selincourt, Ernest, ed. *Wordsworth: Poetical Works*. Rev. ed. Oxford UP, 1981.
- Hartman, Geoffrey H. "A Poet's Progress: Wordsworth and the *Via Naturaliter Negativa*." In Jonathan Wordsworth, et al., eds. *The Prelude 1799, 1805, 1850*. New York: Norton, 1979.
- Kortelling, Jacomina. *Mysticism in Blake and Wordsworth*. New York: Haskell House, 1966.
- Levinson, Majorie. *Wordsworth's Great Period Poems: Four Essays*. Cambridge UP, 1986.
- Lovelock, James. *Gaia: A New Look at Life on Earth*. Oxford UP, 1987.
- Liu, Alan. *Wordsworth: The Sense of History*. Stanford UP, 1989.
- McGann, Jerome J. *The Romantic Ideology: A Critical Investigation*. U of Chicago P, 1983.
-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Vol. 16. Chicago: Encyclopedia Britannica, 1988.
- Purkis, John. *A Preface to Wordsworth*. Longman, 1970.
- Stillinger, Jack, ed. *William Wordsworth: Selected Poems and Prefaces*. Boston: Houghton, 1965.
- Wordsworth, Jonathan, et al., eds. *The Prelude 1799, 1805, 1850. Authoritative Texts, Contexts, and Reception, Recent Critical Essays*. New York: Norton, 1979.

■ Abstract

Wordsworth's Ecological Imagination

Chong-Ho Lee

We live in an age when the concern for environment is uppermost in our mind. This state of affairs has been brought about as a result of the headstrong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echnology for the last two centuries without any regard to what kind of consequence this kin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would usher in. In the process of single-minded industrialization, nature has been exploited as a means to achieve the maximum level of production. In this respect, nature has simply been considered as something to be exploited without having its own intrinsic value.

In reaction to this kind of reckless industrial development, there have emerged a group of people who think that this kind of nature-exploiting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detrimental, not only to the well-being of human beings, but also to the environment as well. One of the pioneers in this kind of new thinking was Ernest Haeckel, a German zoologist, who has first used the term, ecology, as "the investigation of the total relations of the animal both to its intrinsic and to its organic environment." Since Haeckel has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to the animal world, his concept of ecology has caught on in the scientific community. Later in the 20th Century James E. Lovelock has come up with "a new insight into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living and the inorganic parts of the planet."

Recent developments in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thinking have provided us with an opportunity to read Wordsworth's poetry from a new perspective. Even though there is a group of critics who consider nature in Wordsworth's poetry is not an end in itself but a means to reach something beyond, w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Wordsworth considered nature as a living entity. He has thought that nature and human beings have very intimate relationship. In this respect, man is not alienated from nature. In his view, nature is always in the process of creation, that is, *natura naturans*. Furthermore, Wordsworth "gave a moral life/To every natural form." To Wordsworth, therefore, it is unthinkable to separate man from nature. This kind of Wordsworthian thinking should be valuable in considering Wordsworth as ecology-friendly and environment-minded poet. We see examples of his ecological imagination very clearly in his poetry, especially "Goody Blake and Harry Gill" and *The Prelude*.

